

# 조선시대 長興의 邑誌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epji(town chronicles) of Jangheung in the Chosun Dynasty

안 현 주(Hyeonju Ah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장흥 읍지의 특성     |
| II. 장흥의 인문지리적 배경 | 1. 他邑誌와의 비교       |
| III. 장흥 읍지의 편찬   | 2. 장흥 읍지의 記述類型 분석 |
| 1. 시대적 배경        | V. 결론             |
| 2. 現存本 邑誌        |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전남지방의 읍지편찬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長興의 읍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전남의 다른 지역의 읍지편찬 연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장흥의 읍지를 조사하여 체계화하였으며, 개별 읍지의 내용과 체재를 살펴서 장흥에서 편찬된 읍지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조조부터 1910년까지 10종의 읍지가 현존하였고, 고종조에서 편찬한 읍지가 4종이었다. 읍지의 체계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항목을 더하여 기술하고 있다. 장흥읍지의 특성은 1) 각 坊중심으로 기술한 읍지가 3종 있는데, 人物항목에서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성리학적 교회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軍事항목 중심의 읍지가 2종이 있는데, 당시 水軍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장흥의 군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官撰邑誌가 4종 있는데, 읍지의 내용과 체제가 영조조와 고종조의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또한 『함주지』, 『김해읍지』와 비교한 결과 『장흥읍지』는 지리적 요건 상 국방의 요충지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키워드: 읍지, 장흥, 함주지, 김해읍지

### ABSTRACT

As a pioneer study to figure out the compilation of Uepji(town chronicles) of Chunnam region in the Chosun Dynasty, it is analyzed the Uepji of Jangheung. It could help systemize the study of the compilation of Uepji about other town in Chunnam reg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exisisting Uepji of Jangheung and actual reviewing of books, characteristics of them were explored systematically. As the result, there were 10 kinds of Uepji which were compiled from the period of King Youngjo to 1910. The system of Uepji was based upon "the new version of Dongkukyeochiseungram" and was added up new items. Characteristics of Uepji of Jangheung are : 1) There were 3 titles of Uepji which were described by focusing on each county(坊), specially 'Inmul(personage)' shows their strong community spirit and enlightening by neo-Confucianism. 2) There were 2 titles of Uepji which were described by focusing on the military, we ca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ilitary and circumstantial intelligence. 3) There were 4 titles of Uepji which were compiled by government, they reflect the spirit of age. Also the result of comparison with other town chronicles like 『Hamju-Chi』, 『Kimhae-Uepji』, it shows Jangheung was the one of major military town.

Keywords: Uepji, Jangheung, Hamju-Chi, Kimhae-Uepji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 논문접수: 2013년 8월 20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8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0일

## I. 서론

조선시대 중요한 지방사자료 중 하나는 1,000여종이나 殘存하고 있는 邑誌이다. 김부식의 『三國史記』 『地理志』 이래로, 조선의 건국과 수도의 이전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세종대와 성종대에 『新撰八道地理志』, 『八道地理志』, 『東國輿地勝覽』 등 전국 지리지의 편찬이 활발하였다. 조선 중기인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지리지의 양식이 조선 전기에 이루어졌던 국가 주도의 전국 지리지로부터 지방 단위의 지리지인 邑誌로 전환된다.<sup>1)</sup> 읍지란 각 고을의 지리지로서, 지방행정단위인 부, 목, 군, 현 등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었다.<sup>2)</sup> 조선 후기 고종조에 이르러서는 가장 많은 읍지가 편찬되었다. 조선조의 각 왕들은 지방의 주요한 사안을 검토할 때 邑誌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였음을 『承政院日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당시 읍지는 지방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 가장 원천적인 자료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전남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방사자료와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학의 정립은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문화의 원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전남의 邑誌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長興지역부터 파악하고자 한다. 장흥은 조선 시대에 都護府로서 인근의 여러 군을 관할하였으며, 바다와 인접하여 水軍의 鎭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군사적으로 지리적 요충지였던 장흥지방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전남지역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

조선조 읍지에 관해 포괄적인 연구<sup>3)</sup>나 경상도 지역, 전북 지역의 연구<sup>4)</sup>는 그 동안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전남의 읍지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장흥의 읍지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읍지의 내용과 체제, 타 읍지와 비교 등을 통해 장흥의 읍지의 특성을 고찰하고 앞으로 전남지역의 읍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제와 특징,” 강남대학교 인문대학논집, 제4집(1997, 12), p.204.

2) 상계서, p.209.

3) 김전배, “朝鮮王朝의 邑誌研究,” 한국비블리아, 제2집(1974), pp.211-308.

양보경,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제와 특징,” 강남대학교 인문대학논집, 제4집(1997, 12), pp.203-225.

정대영,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書誌學報, 제38호(2011), pp.77-113.

4)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慶尙道の 私撰 邑誌,” 전북사학, 17호(1994), pp.19-52.

임지환, “전북지방사 자료의 연구 (1) : 전북지역 읍지에 관한 연구,” 全羅文化論叢, 3호(1989), pp.112-135.

## II. 장흥의 인문지리적 배경

장흥은 본래 백제의 烏次縣이었는데, 신라에서 烏兒縣으로 고쳐서 寶城郡의 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定安縣으로 고쳐서 靈巖 任內에 屬하게 하였다가 仁宗이 恭睿太后 任氏의 고향이라 하여 知長興府事로 승격시켰고, 元宗 6년에 또 懷州牧으로 승격시켰다가, 忠宣王 2년에 다시 장흥부로 강등시켰다. 별호는 定州 또는 冠山이라고 한다.<sup>5)</sup> 조선 초인 태조 1년(1392년)에 수령현(遂寧縣의 中寧山에 성을 쌓아 治所로 삼았으며, 태종 13년(1413년)에 장흥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이듬해 성이 좁다하여 도로 수령현의 예터로 치소를 옮겼으며, 세조 때에 비로소 鎭을 설치하였다.<sup>6)</sup>

효종4년(1653년)에는 長興사람 金鑑의 종 丙生이 주인을 죽였으나 현감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아 읍호를 낮추었다가<sup>7)</sup>, 효종10년(1659년)에 다시 승격시켰으며, 또 金時同의 胎生地로 오인하여 읍호가 강등되었던 일을 논의하여 숙종 16년(1690년)에 다시 陞號하였다.<sup>8)</sup> 1896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장흥은 장흥도호부에서 나주부 관할 장흥군이 되었다.<sup>9)</sup>

바다에 인접한 입지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이러한 환경은 麗末鮮初에 오히려 왜구의 출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世祖朝에는 軍制를 정비하면서 장흥부에 鎭을 설치해 장흥부사가 僉節制使를 겸임하면서 진도군, 강진현, 해남현을 관할하였다. 이와 함께 水軍鎭인 회령포진이 설치된다. 회령포진은 현재의 보성군 회천면 회령포에 성종21년(1490년)에 쌓았으나 명종조에 회진면 회진리로 옮겨 입진왜란 및 정유재란을 맞았다. 또한 선조32년(1599년)에는 도원수 권윤의 啓請으로 강진에 있던 전라병영성이 장흥읍성으로 옮겨졌다. 6년 후에는 다시 강진으로 병영은 환설되었다. 또한 장흥지역에는 兵曹직할의 察訪道이던 碧沙道가 있었는데 현재의 장흥읍 원도리 일대이다. 이 벽사도에는 10개의 驛이 있었는데 모두 小路驛으로 寶城驛, 可申驛, 波清驛, 楊江驛, 洛昇驛, 鎭原驛, 通路驛, 泉山驛, 別珍驛, 海南驛 등이다.<sup>10)</sup>

조선시대 장흥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장흥군의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부산면, 안량면, 용산면, 유치면, 장동면, 장평면과 보성군의 웅치면, 회령면, 완도군의 금당면, 생일면 일대에 해당하며, 邑治는 장흥군 장흥읍의 남동리에 있었다.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는 전라남도 남해안의 중심에 자리잡고 남북으로 긴 지형이며 중앙에 耽津江이 흐르고 있다. 동쪽으로는 寶城, 북쪽으로는 和順, 서북쪽으로는 靈巖, 서쪽으로는 康津과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多島海, 莞島, 得糧灣, 高興

5) 『世宗實錄』 地理志, 長興都護府, 55책151권 20장 B면.

6)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p.51.

7) 『孝宗實錄』, 11책11권, 4년(1653년) 11월 25日.

8) 『承政院日記』, 肅宗 16年(1690年) 3月 3日.

9) 長興郡誌編纂委員會, 長興郡誌(광주: 장흥군, 1993), p.199.

10) 여지도서 전라도 Ⅲ, 변주승 역주(전주: 디자인흐름, 2009), p.256.

과 접해있다. 장흥은 여러 외침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했는데, 임진왜란 때 金允明은 船舶 50여척을 준비해 놓고 임진강에서 大駕를 도강시켰고, 魏德毅, 金斑, 韓南秀, 朴仁定, 崔億水, 盧南成 등도 공을 세웠다. 또한 魏大器, 魏大經, 宣世臣, 申龍虎, 朴銀福 등은 海戰에서 忠武公을 따라 공을 세웠다. 魏大澤, 盧南成, 鄭見龍, 文弘凱, 梁幹 등은 의병으로 나라를 지켰다.<sup>11)</sup>

장흥 지역은 예로부터 同族部落이 대다수를 차지해왔는데, 大姓氏보다는 인근 지역과 비슷하게 여러 성씨가 혼합되어 산재한다. 그 중에서도 長興 魏, 長興 高, 南平 文, 長興 馬, 竹山 安, 仁川 李, 宜寧 南, 密陽 朴, 金海 金, 靈光 金, 淸風 金, 水原 白氏 등이 각각 몇 개의 동족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長興 魏씨의 入鄕 시기는 1510년대이지만 실제 문중활동은 18세기 중엽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동족마을은 자연스럽게 대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확립시켰고, 그에 따른 禮學이 발달하였다. 가부장적인 친족체제의 변화로 인해 상속제도가 바뀌고 문중의식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장흥은 동족적 기반과 전통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한 곳일뿐 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양의 문화조직 및 향촌조직들을 간직하고 있다.<sup>12)</sup> 또한 문중 중심의 출판활동 또한 활발하였는데, 靑龍舍, 道高洞墓閣, 杏崗齋, 永錫齋, 大也谷齋室, 忠顯祠, 鶴村永慕堂, 長川齋, 石川齋, 悅樂齋, 追慕齋<sup>13)</sup> 등 재실이나 사우에서 보계류와 별집류, 전기류 등이 간행되었다.<sup>14)</sup>

### Ⅲ. 장흥 읍지의 편찬

#### 1. 시대적 배경

地理志는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추출, 표현하고자 했던 방법이다. 지리지는 편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나 道, 지방 관아 등에서 중앙 정부의 계획에 따라 편찬한 지지를 官撰地理志라 하고, 『世宗實錄』 『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 고종조의 전국적 읍지 편찬 사업에 의해 작성된 邑誌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개인이나 지방의 儒林이 주관하거나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편찬된 지지를 私撰地理志 혹은 民撰地理志라고 한다. 權紀 등이 편찬한 『永嘉誌』, 李堧이 편찬한 『商山志』 등을 들 수 있다.<sup>15)</sup>

조선시대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邑誌를 편찬한 시기는 16세기 말부터 이루어졌다. 전라도에서

11) 長興郡誌編纂委員會, 전계서, pp.37-90.

12)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6), pp.293-302.

13) 長川齋는 장흥 위씨, 永錫齋는 인천 이씨, 靑龍舍, 道高洞墓閣는 경주 김씨, 大也谷齋室은 수원 백씨, 忠顯祠, 鶴村永慕堂은 장흥 마씨, 悅樂齋는 장흥 임씨의 재사 또는 사우이다.

14) 안현주, “조선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권3호(2012, 9), pp.423-424.

15) 양보경(1997), 전계서, p.208.

읍지편찬은 선조조에 同福縣監이던 鄭述<sup>16)</sup>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 정구는 선조 17년(1584년)에 『同福志』(화순)를 완성하였는데, 현존하지는 않고 그의 문집인 『寒岡集』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sup>17)</sup> 정구는 그가 부임한 곳마다 그 지역의 읍지를 편찬하였는데, 1580년 『昌山志』(창령)를 편찬한 이래 『咸州誌』(함안), 『關東志』(강릉), 『永嘉誌』(안동), 『平壤志』 등의 편찬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咸州誌』만 현존한다. 그는 수령으로 부임하여 자료의 근거가 될 문헌이 없음을 한탄하고, 李稱, 朴齊仁, 李澣, 吳濼 등과 뜻을 같이 하여 편찬하였다. 安民과 善俗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교화하려는 목적에서 읍지를 편찬하였다.<sup>18)</sup>

현존하는 最古의 전라도 읍지는 광해군 10년(1618년)에 순천부사 李暉光이 편찬한 『昇平志』이다. 이수광은 순천에 부임하기에 앞서 이미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순천도호부 관계기록을 검토하여 사전에 그 내용의 소략함을 파악하고 문헌부족을 애석하게 여겼다.<sup>19)</sup> 그는 『승평지』를 편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부임하였고, 『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편찬하였지만 『동국여지승람』의 23개 항목보다 31개 항목이 추가된 매우 세분되고 상세한 읍지를 작성하게 되었다. 16세기 들어서 읍지의 편찬은 지방 수령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지역의 읍지를 작성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읍지편찬이 보편화된 시기는 영조조에서 『輿地圖書』를 편찬하기 위해 지방의 수령에게 읍지를 제작하여 上送하라는 명령이 있으면서부터이다.<sup>20)</sup> 이후로 정조조, 순조조, 고종조에서 전국적인 읍지상송을 명하여 관찬읍지들을 편찬하게 되었다. 읍지는 그 지역의 실상과 구조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읍지의 편찬동기는 중앙 정부가 해당 지방의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함으로써 집권력을 강화하는가 하면 재지 지배층이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향촌 교화를 강조함으로써 향촌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sup>21)</sup>

조선시대에 장흥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기록은 『世宗實錄』 『地理志』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수록된 항목은 建置沿革, 鄉, 茶所, 鎭山, 四境, 戶數, 人口, 軍丁, 土姓, 人物, 風俗, 墾田, 土宜, 土貢, 藥材, 土產, 瓷器所, 陶器所, 邑石城, 驛, 牧場, 關防, 烽火, 管轄[所領] 등이다.

16) 『宣祖修正實錄』 18卷, 17年(1584年) 3月 1日.

17) 『寒岡集』 15卷, 年譜.

18) 『寒岡集』 10卷, 序中『咸州誌』序.

尙無文獻之可徵胡爲其然哉 豈非咸之可羞乎 余之不敏 既叨於茲 使後於今者 復有問焉 則余亦將何以爲辭哉 余於郡求單父之老友 得武城之直徑 李汝宣稱寬厚長者 朴仲思齊仁隱德有操 李汝涵澣才行俱高 皆余所畏 而每見而每喜者也 吳太源濼亦以邑中先進 方提督郡學 公私相聚 屢與之從容 相與見余所集山川民物之錄 以爲盍撰而成爲郡志乎 則余志也 意見旣符 緝錄斯共...唯今日之所望 則爲長民於茲焉者 有以深警夫前之所言者 而審其幾之所在 益可勉乎其本 而毋忽於安民善俗之要 則其效之所及 殊非余之所敢言.

19) 조원래, “순천부사 이수광의 『昇平志』,” 남도문화연구, 제5호(1997), p.318.

20) 『承政院日記』 英祖41年(1765) 12月 8日.

21) 양보경(1987), 전계서, pp.83-109.

중종조에서 완성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장흥편을 살펴보면, 建置沿革, 君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關防, 烽燧, 樓亭, 學校, 驛院, 佛宇, 祠廟, 古蹟, 名宦, 人物, 題詠 등의 항목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는 경제(茶所, 戶數, 人口, 墾田, 土宜, 土貢, 藥材, 土產, 瓷器所, 陶器所, 牧場)와 군사적(軍丁, 邑石城, 關防)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 반면에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서는 문화적(風俗, 樓亭, 學校, 佛宇, 祠廟, 古蹟, 題詠) 측면이 더 강화되었다.

## 2. 現存本 邑誌

조선 후기에 편찬된 장흥의 읍지는 영조조에 편찬된 것이 현존하는 最古本이다. 현존하는 장흥의 읍지를 조사하여 <표 1>로 작성하였다. 읍지들의 특징과 내용 및 체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흥에서 편찬된 현존본 읍지목록

書名	編纂者	形態事項	刊寫年	所藏處
1) 長興邑誌	未詳	寫本, 1冊74張	1747경	長興郷校
2) 輿地圖書 中 長興	英祖命撰	影印本	英祖朝(1765경)	韓國教會史研究所
3) 長興府誌	未詳	寫本, 1冊17張	正祖朝(1789경)	國立中央圖書館
4) 長興府邑誌	長興府	寫本, 1冊14張	1816경	奎章閣
5) 長興府邑誌	未詳	寫本, 1冊11張	1816경	國立中央圖書館
6) 長興都護府邑誌	未詳	寫本, 1冊36張	1868	長興 安洪天家
7) 湖南邑誌 中 長興	長興府	寫本	1871	奎章閣
8) 湖南邑誌 中 長興	長興府	寫本	1895	奎章閣
9) 湖南邑誌 中 長興郡邑誌	長興郡	寫本, 1冊8張	1899	奎章閣
10) 長興邑誌6(冠山誌)	長興郡	木活字本, 2卷2冊	1910	國立中央圖書館

### 가. 長興邑誌(英祖朝, 1747년경)

장흥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長興邑誌』는 현존하는 읍지 중 最古本인데, 영조조에 편찬되었으며 1冊74張으로 구성된 寫本이다. 口傳에 의하면 인쇄상의 어려움으로 手書하여 장흥향교와 각坊에 1부씩 보관하였다고 한다.<sup>22)</sup> 목차는 凡例, 建置沿革, 官職, 疆界, 坊面, 姓氏, 山川, 土產, 形勝, 風俗, 城池, 烽燧, 公廩, 倉庫, 樓臺, 祠廟, 學校, 旱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補遺, 府內坊, 府東坊, 安壤坊, 會寧坊, 泉浦坊, 熊峙坊, 府西坊, 南面坊, 古邑坊, 有恥坊, 大興坊, 夫山坊, 龍溪坊, 長東坊, 長西坊, 富坪坊 순으로 되어 있다. 범례는 18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읍지의 편찬방향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勝覽』의 체제에 따라 坊으로 나누어진 고을이므로, 방을 각각 1편으로 하여 17편으로 구성하였다.
- '姓氏'에서는 예전에 있었으나 없어진 경우 반드시 지금은 없다고 기록하였다.

22) 이상구, 장흥 지리지·읍지모음(광주: 장흥문화원, 1992), p.12.

- ‘人物’은 한 개의 성씨마다 항목으로 삼았고, 같은 성씨에서는 거주한 지 오래된 선후를 차례로 하였다.
- 田結, 軍丁, 店役, 浦役, 民役, 雜稅 등 6항목은 방리의 所出이고 국가의 급한 것이므로 新增한다.
- ‘高年’은 三才의 정밀함이고 오복 중 으뜸이다. 또한 임금이 걱정하는 바이고 집안의 드문 경사이니 新增한다.

범례에서 언급하였듯이 책의 상반부에는 장흥지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항목을 배치하였고, 후반부에서는 16개의 각 坊面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坊의 기술항목은 沿革, 掌任, 閭里, 道路, 姓氏, 山川, 形勝, 店役, 浦役, 民役, 雜稅, 堤堰, 臺榭, 驛院, 橋梁, 佛宇, 冢墓, 祠廟, 古蹟, 人物, 戶額, 田結, 軍丁 등인데 해당되는 항목만 기술하였고, 民役, 雜稅, 田結, 軍丁 등의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無라고 명기하였다. 각 坊 중심의 기술방식은 조선후기 읍지의 선구적인 『함주지』나 『승평지』의 체제와 사뭇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하였을 때, 疆界, 坊面, 公廩, 倉庫, 旱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掌任, 閭里, 道路, 店役, 浦役, 民役, 雜稅, 堤堰, 橋梁, 佛宇, 冢墓, 戶額, 田結, 軍丁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행정, 재정, 세제, 교통 분야의 항목이 대폭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침 후 점점 안정되어 가며 행정적으로 발전되어가는 18세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읍지라 할 수 있다. ‘인물’항목에는 文科, 武科, 南行, 司馬, 忠義, 孝子, 烈女, 高年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각 방마다 해당되는 것만을 기술하였다. 각 고을마다 ‘高年’항목을 두어 연장자를 기리고, ‘孝子’항목에는 奴婢의 이름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읍지의 편찬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덕적 공동체로 여기고 성리학적인 이상사회의 실현과 교화사상을 읍지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輿地圖書』 중 長興(영조조 1765년경)

『여지도서』는 영조조(1765년경)에서 각 지역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成冊한 전국읍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였지만, 각 지역마다 읍지의 본문보다 앞서 채색지도가 첨부되었다. ‘장흥’ 편의 맨 처음부분은 2면의 채색지도가 들어 있고 坊里, 編戶,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壇廟, 公廩, 堤堰, 倉庫, 物產, 橋梁, 驛院, 烽燧, 寺刹, 古蹟, 鎭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읍지의 경우 건치연혁이 항목의 맨 처음에 수록되는데, 『여지도서』는 각 지역마다 지도, 방리, 편호, 도로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건치연혁’항목의 앞에 두었다. ‘編戶’항목에서 기묘년(1759년, 영조35)의 호적에 따랐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 1759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항목 중 ‘稅制’항목은 세분되어 내용이 풍부해졌고, ‘軍兵’항목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었는데, 이는 장흥도호부의 행정적, 지리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 長興府誌(정조조, 1789년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長興府誌』는 정조조(1789년경)에 작성된 읍지의 요약본이다. ‘官職’ 항목에는 역대 수령의 명단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수록된 ‘沈鳳淳’은 1788년 5월부터 1790년 2월 까지 재임하였다.<sup>23)</sup> 또한 권말에 “崇禎紀元後三己酉(1789)十月日府使沈候鳳淳以餘件一卷要爲替面之資故藏之于家”라는 識記가 있어서 장흥부사 심봉순이 집에 소장하기 위하여 여분으로 요약해 둔 것으로 보인다.

항목은 地圖,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產, 橋梁, 驛院, 關陘, 烽燧, 樓亭, 寺刹, 古蹟, 鎭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冊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없는 關陘, 樓亭, 冊板 항목이 추가되었다. ‘冊板’항목은 여러 종의 장흥읍지 중 여기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누관고』를 작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책판의 소장상황을 보고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맨 마지막에 수록된 ‘책판’항목에는 西涯樂府, 大千字板, 老峯集板의 소장처가 수록되어 있다.

라. 長興府邑誌(순조조, 1816년경)

규장각 소장본(奎17428) 『長興府邑誌』는 1816년경에 작성된 읍지이다. ‘官職’항목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朴升煥’은 1816년 6월부터 1816년 12월까지 재임하였다.<sup>24)</sup>

항목은 邑基方向, 道里, 地廣, 建置沿革, 郡名, 古蹟, 形勝, 風俗, 官職, 軍校各樣員役(附軍額), 軍額, 關防, 城池, 樓亭, 公廨, 倉庫司倉, 方物進貢, 物產, 船艙, 戰兵, 封山, 軍餉, 民戶, 水軍, 水操海洋, 設陣, 軍器(水軍器, 陸軍器), 舟汙戰船, 搜討, 入防軍, 異國船漂泊, 烽燧, 山城, 驛路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읍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편집체제를 보여준다. 기존의 읍지와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邑基方向, 地廣, 軍校各樣員役, 關防, 船艙, 戰兵, 封山, 軍餉, 水軍, 水操海洋, 設陣, 軍器(水軍器, 陸軍器), 舟汙戰船, 搜討, 入防軍, 異國船漂泊(後舉行事例), 山城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水軍과 관련된 항목이 대폭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舟汙戰船, 異國船漂泊(後舉行事例) 등은 다른 지역의 읍지에서는 볼 수 없는 항목이다.

마. 長興府邑誌(순조조, 1816년경)

필사본이며 1冊11張으로 된 연대미상의 읍지이다. 필사자나 편찬년대를 알 수 없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1816년경에 작성된 라) 읍지와 가장 흡사하다. 권두에 채색지도가 들어 있고, 다음 장에 ‘장흥도호부’라는 권수제가 있으며, 수록된 항목은 邑基, 道里, 地廣, 建置沿革, 郡名, 古蹟, 形勝, 風俗, 官職, 軍校, 軍額, 關防, 城池, 樓亭, 公廨, 倉庫, 方物, 物產, 封山, 戶口, 搜討, 津梁, 入

23) 長興郡誌編纂委員會, 전계서, p.1251.

24) 상계서, p.1251.



防軍, 人物, 山川, 烽燧, 驛路, 寺刹 순이다.

라. 읍지와 비교하면,

- 항목의 순서가 대체로 비슷하나 入防軍 다음에 인물, 산천이 추가되었고, 맨 마지막에 寺刹이 추가되었다.
- 樓亭, 方物, 物産, 民戶, 驛路 등은 소략하다.
- 船艙, 戰兵 軍餉, 水軍, 水操海洋, 設陣, 軍器(水軍器, 陸軍器), 舟汙戰船 異國船漂泊등은 없다.
- 인물 항목은 세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소략하다.

일반적인 읍지와 기본적인 체제는 큰 차이는 없지만 1816년경의 읍지와 비교하면 내용이 간략하고 특히 군사 관련 항목은 入防軍외에는 볼 수 없어서 완결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마. 長興都護府邑誌(고종조, 1868년경)

권수제는 『長興都護府邑誌』이고, 표제는 『長興都護府遺事 邑誌(抄)』로 되어 있다. 권말에 “戊辰四月二十五日騰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壇廟 항목의 新增란에 수록되어 있는 忠賢祠는 1831년에 세워졌고 四賢祠는 1846년에 세워졌으며 장흥이 도호부로 불리우는 시기는 1895년까지이므로 이 읍지의 작성연대는 186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항목은 세조조에 鎭을 설치 한 내용, 坊里(戶口), 道路, 建置沿革, 形勝, 官職, 山川, 方浦, 風俗, 壇廟, 公廨, 堤堰, 倉庫, 進貢物産, 樓臺, 寺刹, 古跡, 鎭堡, 名宦, 坊面, 姓氏, 府內坊, 府東坊, 府西坊, 夫山坊, 龍溪坊, 安良坊, 南面坊, 有恥坊, 會寧面坊, 泉浦面坊, 熊峙坊, 長東坊, 長西坊, 富坪坊, 古邑坊, 大興坊, 境內各姓氏頭管品職總敍錄, 田總, 旱田, 水田總순으로 되어 있다.

이 읍지의 특징은 세조조에 鎭을 설치 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建置沿革’항목 보다 먼저 坊里(戶口), 道路 등이 나온다. 기술방식이 1747년본과 같이 각 坊 중심이다. 그러나 기술순서는 달리 하였다. 또한 ‘新增’을 두어 변화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는 그 전의 읍지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실들을 꼼꼼히 수집했음을 뜻한다. ‘壇廟’항목이 아주 상세한 것도 다른 읍지와 다른 점이다. ‘方浦’, ‘境內各姓氏頭管品職總敍錄’은 이 읍지에만 있는 항목이다.

사. 『湖南邑誌』 중 長興(고종조, 1871년)

이 책은 1871년에 내려진 상송령에 의해 작성된 『湖南邑誌』 10책 중 장흥의 읍지이다. 상송령은 『清河縣邑誌』, 『金化縣邑誌』 등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金化縣邑誌』<sup>25)</sup>에는 “지금 公家의 文獻을 고치려 하는 바 의정부는 中外의 땅을 총괄하여 다스리나 각 읍의 읍지가 散逸되어 고증할 방도가

없이 일제히 騰置하려 한다.(중략) 冊版의 見樣을 내려 보내니, 이를 똑같이 인쇄해서 각 읍에 보내어 精書·粧黃하여 속히 상송하고, 또 읍지의 말미에 각기 事例의 대강을 덧붙이며, 營, 鎭, 驛이 있는 곳은 1책으로 합쳐서 기한을 넘기지 말고 상송하라”라는 작성명령에 대한 關文이 들어 있다.<sup>25)</sup> 辛未年(1871년) 9월 10일에 작성된 이 관문을 통해 고종3년(1866년)의 丙寅洋擾와 고종8년(1871년)의 辛未洋擾 후 의정부에서 전국적인 읍지를 정비하려는 군사력 강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항목은 彩色地圖, 邑基方向, 道里, 地廣, 建置沿革, 郡名, 古蹟, 形勝, 風俗, 官職, 軍校各樣員役(附軍額), 軍摠, 公廩 倉庫司倉, 方物進貢, 物產, 戰船, 元戶, 設陣, 軍器(水軍器, 陸軍器), 異國船漂泊, 烽燧, 山城, 元帳付田畝, 碧沙道屬十驛誌(圖, 公廩, 官員, 所屬九驛, 馬戶, 卒, 復戶, 位田, 位畝, 保率), 會寧鎭(水軍, 疆界, 公廩, 列字戰船, 舟師戰船, 入防軍, 民戶, 松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송령의 관문처럼 말미에 『碧沙道屬十驛誌』와 『會寧鎭誌』가 습합되어 있다.

아. 『湖南邑誌』 중 長興(長興都護府邑誌, 1895년)

읍지상송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찬읍지를 편찬했던 1895년의 장흥의 읍지이다. 1871년의 읍지보다 地圖와 내용이 더 소략하다. 이 책의 항목은 建置沿革, 郡名, 官職, 疆界, 坊面, 山川, 土產, 形勝, 烽燧, 公廩, 樓臺, 祠廟, 學校, 進貢 등으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읍지에서 보이는 古蹟, 風俗, 城池, 倉庫, 戶口, 人物, 驛路, 寺刹 등이 빠져 있다. 또한 『湖南鎭誌』 중에 『會寧鎭誌』와 『修仁山城誌』가 들어 있고, 『湖南驛誌』 중에 『碧沙道驛誌』가 들어 있다.

자. 『湖南邑誌』 중 長興(長興郡邑誌, 1899년)

1899년 편찬된 『호남읍지』 중 長興郡의 읍지이다. 필사본이며, 1冊8張으로 되어 있다. 卷首에 채색지도가 들어 있고, 長興郡의 읍지내용이 시작된다. 도호부에서 군으로 바뀐 후 첫 번째 읍지이다. 수록항목은 建置沿革, 郡名, 山川, 結摠, 民戶, 學校, 壇廟, 佛宇, 道路, 橋梁, 堤堰, 場市, 宦蹟, 人物 등이다. 기존의 읍지에 비해 매우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皇城新聞』에 읍지상송령에 관한 기사가 들어 있는데, “誌與地圖를 各二件式 不日 精書호야 令到後三十日內로 趕速修 寫호라 呼앗다더라”<sup>27)</sup> 라고 되어 있다. 1개월 내에 지도와 읍지를 올리라는 요구로 인해 읍지는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이 읍지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은 ‘場市’인데, 장시가 서는 곳 7개소와 각각 장이 열리는 날짜를 명시하였다. ‘宦蹟’은 역대 수령의 명단인데 읍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25) 규장각소장본 청구기호: 古 4792-1.

26) 정대영, 전계논문, p.83.

27) 『皇城新聞』 大韓 光武3年(1899) 4月 26日. 정대영, 전계논문, p.80.에서 재인용.

기존의 다른 읍지에 비해 내용이나 항목이 소략하다. 다른 읍지에 수록된 形勝, 郡名, 風俗, 古蹟, 樓亭, 題詠, 姓氏, 驛院, 烽燧, 公廡, 城池, 倉庫, 關防, 物產, 군사관련, 조세관련 항목들이 빠져 있다. 토지결수나 호구수의 통계수치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흥도호부에서 장흥군으로 군체 개편이 되면서 20개 里와 島嶼가 莞島郡으로 移屬되었기 때문이다.<sup>28)</sup>

#### 차. 長興邑誌(冠山誌, 1910년)

木活字本이며 2卷2冊으로 구성된 이 책은 관심제는 『長興邑誌』이고 서문에는 『冠山誌』라고 되어 있다. 冠山은 장흥의 옛 지명이다. 奇宇萬, 李載莘이 서문을 작성하였고, “庚戌榴夏石川齋開刊”라는 간기가 있어, 1910년 5월에 石川齋에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乾卷에는 序文과 邑先生案, 凡例, 府東坊부터 長東坊까지 수록되어 있고, 坤卷에는 安壤坊부터 大興坊까지 수록되었고 마지막에 邑원록이 들어 있다. 邑誌와 각 방 중심의 편성체제로 구성된 점이 이 읍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영조조(1747년경)의 읍지를 底本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邑誌는 1747년 읍지와 동일하고, ‘邑先生案’에는 역대 수령의 성명과 재임기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新誌’라는 항목 아래에 수록하고 있다. 연혁, 학교, 창고, 공해 등의 내용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방에 관한 기술은 영조조(1747년경)의 읍지와 체제가 같으나, 방의 수록 차례가 바뀌었고, ‘인물’ 항목에서 세부항목 ‘文行’이 추가되었다. 각 방의 말미에는 편찬에 참여한 有司, 五衛將 등을 기록하였다. 영조조(1747년경)의 읍지와 비교하면 각 방의 인물 선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는 각 방의 편찬자들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조조(1747년경)의 읍지와 비슷한 체제이나 韓旼, 水旼, 趙旼, 大旼, 趙旼, 趙旼, 趙旼 등 경제적인 항목이 빠지고, 인물 중심의 읍지로 전환되었다.

## IV. 장흥 읍지의 특성

### 1. 他邑誌와의 비교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전라도는 4개의 도호부와 경상도는 7개의 도호부가 있었다. 전라도에 속한 도호부는 남원, 장흥, 담양, 순천이고, 경상도에 속하는 도호부는 밀양, 선산, 영해, 김해, 창원, 청송, 대구이다. 장흥도호부와 같은 도호부이면서 바다에 인접한 경상도의 김해를 선정하여 읍지에 수록된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또한 조선 후기 가장 먼저 작성된 사찬읍지인 『咸州誌』와도 비교하여 장흥 읍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의 장흥의 읍지는 지역적 특성을

28) 長興郡誌編纂委員會, 전계서, p.199.

잘 보여주는 1816년본을 선정하였다. 세 지역 읍지의 수록 항목을 비교하여 <표 2>로 나타내었다.

<표 2> 『咸州誌』, 『金海邑誌』와 비교

分類	咸州誌 (1587)	金海邑誌 (1832경)	長興邑誌 (1816경)	
自然地理	山川, 形勝,	山川, 形勝,	邑基, 形勝	
人文地理	歷史	沿革, 郡名	沿革, 郡名	
	文化	風俗, 壇廟, 學校, 亭榭, 佛宇, 古蹟, 塚墓, 冊版, 題詠, 叢談, 序, 跋, 估畢齋行蹟	風俗, 學校, 壇廟, 陵墓, 佛宇, 樓亭, 古蹟, 題詠, 碑板	風俗, 樓亭, 古蹟
	人物	名宦, 姓氏, 人物, 寓居, 流配, 先行, 閩行, 見行, 文科, 武科, 司馬, 旌表,	姓氏, 蔭仕, 流配, 科舉, 老職, 司馬, 人物, 孝行, 閩行, 宦蹟	無
	經濟	戶口, 田結, 土產, 堤堰, 灌溉	戶口 田賦, 徭役, 倉庫, 堤堰, 場市, 土產, 進貢, 俸廩	民戶, 封山, 倉庫, 方物, 物產
	交通	京師相距, 驛院, 烽燧, 橋梁,	烽燧, 道路, 橋梁, 驛院,	船艙, 烽燧, 驛路
	行政	四隣疆界, 各里, 館宇, 任官	官職 坊里, 公廩, 島嶼,	道里, 地廣, 官職, 城池, 公廩
	軍事	城郭, 軍器	軍額, 城池, 軍器, 水陳軍器, 關阨, 鎮堡,	戰兵, 軍校, 軍額, 關防, 山城, 戰船, 入防軍, 水軍, 軍餉, 水操, 搜討, 設陣 軍器, 異國船漂迫

『金海邑誌』는 인조(1630년)에 편찬되었고, 순조(1832년)에 증보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續刊되었다. '續'자를 사용하여 순조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있다.<sup>29)</sup> 순조조 읍지에 수록된 항목은 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風俗, 坊里, 戶口, 田賦, 徭役, 軍額, 城池, 倉庫, 軍器, 水陳軍器, 關阨, 鎮堡, 烽燧, 學校, 壇廟, 陵墓, 佛宇, 公廩, 樓亭, 道路, 橋梁, 島嶼, 堤堰, 場市, 驛院, 形勝, 古蹟, 土產, 進貢, 俸廩, 宦蹟, 蔭仕, 流配, 科舉, 老職, 司馬, 人物, 孝行, 閩行, 題詠, 碑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의 약 37%를 人物(宦蹟, 蔭仕, 流配, 科舉, 老職, 司馬, 孝行, 閩行)에 할애하고 있다.

<표 2>에서 세 지역의 읍지를 비교해 보면 조선 후기 지방의 사찬읍지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알 수 있게 작성한 것이고, 읍지마다 고유한 특성을 보여준다. 『咸州誌』의 경우 그 후 경상도 지방에서 편찬되는 읍지들의 바탕이 되었는데, 안동의 『永嘉誌』, 진주의 『晉陽志』 등은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 16세기 말에 작성된 『함주지』의 경우, 임란 직전의 어려운 사회상과 향촌질서에 대한 수령의 의지는 당시 읍지를 편찬케 하는 배경이 되었다. <표 2>에서도 『함주지』와 『김해읍지』는 유사한 항목을 많이 보여준다. 『함주지』는 특히 문화, 경제, 인물 등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고, 『김해읍지』는 인물, 문화, 경제, 군사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장

29) 한국인문과학원, 韓國近代邑誌(서울: 한국인문과학원), 권14, 1991, pp.1-199.

흥읍지』는 군사, 경제, 행정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흥읍지』는 지리적 요건 상 국방의 요충지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분화된 ‘軍事’와 관련된 항목들은 조선 후기 水軍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김해읍지』와 비교해도 『장흥읍지』가 훨씬 상세하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군사적인 면을 강조한 읍지들도 많아졌는데, 『東萊志』, 『北關誌』, 『江都志』, 『耽羅志』들도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장흥 읍지의 記述類型 분석

장흥지역의 현존하는 읍지는 10종으로 조사되었다. 18세기 중엽인 영조조에서 편찬된 것이 2종, 정조조 1종, 순조조 2종, 고종조 4종, 순종조 1종으로 고종조에서 가장 자주 편찬되었다. 이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의 추이와도 동일하다. 16·17세기에 작성된 읍지가 현존하지 않고, 현존읍지에 序文이나 跋文이 없어서 편찬경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8종이 寫本으로 되어 있고, 영조조의 『輿地圖書』는 영인본, 1910년 읍지는 목활자본이다. 읍지의 특성상 많은 부수를 작성하지 않아 대체로 寫本으로 유통되었다.

읍지의 기본적인 체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은 建置沿革, 君名, 官員,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鎭營, 城郭, 關防, 烽燧, 樓亭, 學校, 橋梁, 倉庫, 驛院, 佛宇, 祠廟, 古蹟, 名宦, 人物, 題詠 등인데 조선후기에 작성된 장흥의 읍지도 위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항목을 더하여 기술하고 있다. 수록항목을 살펴보면, 18세기 들어 경제, 교통, 행정 등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고, 19세기부터는 군사 항목이 많이 늘어나 읍지의 성격이 변모된다.

장흥지역의 읍지에 수록된 항목을 <표 3>으로 작성하였다. 분류는 먼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서 대별하고, 인문지리의 내용을 다시 역사, 문화, 인물, 경제, 교통, 행정, 군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표 3> 조선후기 장흥지역 읍지의 항목

分類	영조조 1747년경	영조조 (여지도서)	정조조 1789년경	순조조 1816년경	고종조 1871년경	고종조 1899년	순종조 1910년
自然地理	形勝** 山川**	形勝 山川	形勝 山川	邑基 形勝	邑基 形勝	山川	形勝 山川*
歷史	沿革**	沿革 郡名	沿革 郡名	沿革 郡名	沿革 郡名	沿革 郡名	沿革
人文地理	風俗 樓臺** 祠廟** 學校 佛宇* 冢墓* 古蹟*	風俗 壇廟 寺刹 古蹟	風俗 壇廟 樓亭 寺刹 古蹟 冊板	風俗 樓亭 古蹟	古蹟 風俗	學校 壇廟 佛宇	風俗 樓臺 臺榭* 祠廟** 學校** 佛宇* 冢墓* 古蹟* 題詠*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分類	영조조 1747년경	영조조 (여지도서)	정조조 1789년경	순조조 1816년경	고종조 1871년경	고종조 1899년	순종조 1910년
人物	姓氏** 人物*	姓氏 人物	姓氏 人物	無	無	人物	姓氏
經濟	土産 倉庫 旱田 進貢 糶羅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店役* 浦役* 民役* 雜稅* 堤堰* 戶額* 田結*	編戶 堤堰 倉庫 物産 旱田 水田 進貢 糶羅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倉庫 堤堰 物産 旱田 水田 進貢 糶羅 田稅 大同 均稅 俸廩	民戶 封山 倉庫 方物産	倉庫 方物 物産 元戶 元帳 民戶# 松田# 位田## 位畓##	民戶 堤堰 場市 結摠	土産 倉庫 結卜* 民役* 堤堰* 糶羅* 田結 戶額*
交通	烽燧 道路* 驛院* 橋梁*	烽燧 道路 驛院 橋梁	烽燧 道路 驛院 橋梁	船艙 烽燧 驛路	烽燧	道路 橋梁	烽燧 道路* 驛院* 橋梁*
行政	疆界 坊面 城池 公廨 閭里* 掌任*	坊里 官職 城池 公廨	坊里 官職 城池 公廨	道里 地廣 官職 城池 公廨	道里 地廣 官職 疆界# 公廨### 官員## 所屬## 馬戶## 卒##	宦蹟	先生案 官職 疆界 坊面 城池 公廨 閭里* 掌任*
軍事	軍兵 軍丁*	鎮堡 軍兵	軍兵 關陘 鎮堡	戰兵 軍校 軍額 關防 山城 戰船 入防軍 水軍 軍餉 水操 搜討 設陣 軍器 異國船	軍總 軍校 戰船 山城 設陣 軍器 異國船 水軍# 列字# 舟師# 入防軍# 保率##		軍兵 軍丁*
비고	凡例 各坊(*) ** :중복				會寧鎮誌(#) 碧沙道屬十驛 誌(##) ### :중복		凡例 各坊(*) ** :중복

(항목들 중 異國船票迫 → 異國船, 列字戰船 → 列字, 舟師戰船 → 舟師 등으로 생략하여 표기함)

읍지의 특성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가. 各 坊중심의 記述

1747년본, 1868년본, 1910년본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지만 各 坊 중심으로 상세한 사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各 坊중심의 기술체제는 일반 읍지에서는 볼 수 없는 구성이다. 당시 장흥도호부는 府內坊, 府東坊, 安壤坊, 會寧坊, 泉浦坊, 熊峙坊, 府西坊, 南面坊, 古邑坊, 有恥坊, 大興坊, 夫山坊, 龍溪坊, 長東坊, 長西坊, 富坪坊 등 16방으로 坊리가 구성되어 있었다. 읍지의 전반부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항목들을 기술하고, 후반부에서는 16방의 사정을 沿革, 掌任, 閭里, 道路, 姓氏, 山川, 形勝, 店役, 浦役, 民役, 雜稅, 堤堰, 臺榭, 驛院, 橋梁, 佛宇, 冢墓, 祠廟, 古蹟, 人物, 戶額, 田結, 軍丁 등의 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기술하였다. 장흥읍지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하였을 때, 행정, 재정, 세제, 교통 분야의 항목이 대폭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인물’항목에는 각 고을마다 ‘高年’항목을 두어 연장자를 기리고, ‘孝子’항목에는 奴婢의 이름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읍지의 편찬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덕적 공동체로 여기고 성리학적 이상사회의 실현과 교회사상을 읍지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군사 항목 중심의 記述

1816년본과 1871년본은 인물에 관한 기술은 거의 없고, 행정과 군사항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읍지에서는 군사항목이 가장 많은 세무항목(戰兵, 軍校, 軍額, 關防, 山城, 戰船, 入防軍, 水軍, 軍餉, 水操, 搜討 設陣 軍器, 異國船漂迫)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는데 ‘異國船漂迫’항목은 다른 읍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흥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異國船 출몰은 숙종 28년부터 꾸준히 발생하는데, 진도, 제주, 영암, 흑산도, 영광, 지도, 해남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정조조에서 19건, 순조조에서 25건 출몰하였다.<sup>30)</sup> 장흥은 당시 도호부로 연안 島嶼지역과 진도군, 강진현, 해남현을 관할하였으며 수군이 주둔하는 회령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군사적 세부사항을 자세히 읍지에 기술해 놓았던 것이다.

#### 다. 官撰邑誌

영조조의 『輿地圖書』, 고종조의 『湖南邑誌』(1871년본, 1895년본, 1899년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모두 읍지상송령에 의해 작성된 읍지이다. 『여지도서』의 장흥도호부 편은 항목도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강화되고 상세하게 장흥의 특성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 고종조에 작성된 3종의 읍지는 1871년본과 마지막 2종은 그 차이가 드러난다. 1871년본은 내용이 상세하고, 군사적인

30) 『承政院日記』에는 59건의 異國船에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항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1895년본과 1899년본은 내용이 빈약하고, 항목도 간략하다. 단 기간 동안 전국의 읍지를 일제히 올리라는 명령에 의해 급하게 작성되어, 1895년본의 경우 장흥도호부 읍지는 단 3장에 불과하다. 또한 1899년본의 새로운 항목은 ‘場市’ 하나이고 읍지의 대부분은 畝蹟과 人物이 차지하고 있어서, 고종조 마지막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V. 결 론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에 편찬된 장흥의 읍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장흥지역의 현존하는 읍지는 10종으로 조사되었다. 18세기 중엽인 영조조에서 편찬된 것이 2종, 정조조 1종, 순조조 2종, 고종조 4종, 순종조 1종으로 고종조에서 가장 자주 편찬되었다.
2. 읍지의 체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항목을 더하여 기술하고 있다. 수록항목을 살펴보면, 18세기 들어 경제, 교통, 행정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고, 19세기부터는 군사 항목이 많이 늘어나 읍지의 성격이 변모된다.
3. 읍지의 특성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各 坊 중심의 記述

1747년본, 1868년본, 1910년본은 各 坊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各 坊 중심의 기술체제는 일반 읍지에서는 볼 수 없는 구성이다. 읍지의 전반부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항목들을 기술하고, 후반부에서는 16방의 사정을 沿革, 掌任, 閭里, 道路, 姓氏, 山川, 形勝, 店役, 浦役, 民役, 雜稅, 堤堰, 臺榭, 驛院, 橋梁, 佛宇, 冢墓, 祠廟, 古蹟, 人物, 戶額, 田結, 軍丁 등의 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기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하였을 때, 행정, 재정, 세제, 교통 분야의 항목이 대폭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인물’항목에는 각 고을마다 ‘高年’항목을 두었고, ‘孝子’항목에는 奴婢의 이름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읍지의 편찬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덕적 공동체로 여기고 성리학적 이상사회의 실현과 교회사상을 읍지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사 항목 중심의 記述

1816년본과 1871년본은 인물에 관한 기술은 거의 없고, 행정과 군사항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장흥은 당시 도호부로 연안 島嶼지역과 진도군, 강진현, 해남현을 관할하였으며 수군이 주둔하는 회령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 읍지에서는 군사항목이 가장 많은 세부항목(戰兵, 軍校, 軍額, 關防, 山城, 戰船, 入防軍, 水軍, 軍餉, 水操, 搜討 設陣 軍器, 異國船漂迫)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 ‘異國船漂迫’항목은 다른 읍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흥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官撰邑誌

영조조의 『輿地圖書』, 고종조의 『湖南邑誌』(1871년본, 1895년본, 1899년본) 등이 여기에 속하



는데, 이들은 모두 읍지상송령에 의해 작성된 읍지이다. 『여지도서』의 장흥도호부 편은 항목도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강화되고 상세하게 장흥의 특성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 고종조에 작성된 3종의 읍지는 1871년본과 마지막 2종은 그 차이가 드러난다. 1871년본은 내용이 상세하고, 군사적인 항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1899년본의 새로운 항목은 '場市' 하나이고 읍지의 대부분은 宦蹟과 人物이 차지하고 있어서, 고종조 마지막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4. 『함주지』, 『김해읍지』, 『장흥읍지』를 비교했을 때에, 『함주지』와 『김해읍지』는 유사한 항목을 많이 보여준다. 『함주지』는 특히 문화, 경제, 인물 등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고, 『김해읍지』는 인물, 문화, 경제, 군사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장흥읍지』는 군사, 경제, 행정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흥읍지』는 지리적 요건 상 국방의 요충지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寒岡集』

여지도서 전라도 Ⅲ. 변주승 역주. 전주: 디자인흐름, 2009.

이상구. 장흥 지리지·읍지모음. 광주: 장흥문화원, 1992.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한국인문과학원. 韓國近代邑誌. 권14.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1.

김전배. “朝鮮王朝의 邑誌研究.” 한국비블리아, 제2집(1974), pp.211-308.

안현주. “조선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집, 제3호 (2012, 9), pp.407-432.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재와 특징.” 강남대학교 인문대학논집, 제4집(1997. 12), p.203-225.

양보경.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임지환. “전북지방사 자료의 연구(1) : 전북지역 읍지에 관한 연구.” 奎羅文化論叢, 3호(1989), pp.112-135.

정대영.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書誌學報, 제38호(2011), pp.77-113.

조원래. “순천부사 이수광의 『昇平志』.” 남도문화연구, 제5호(1997), pp.307-323.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慶尙道の 私撰 邑誌.” 전북사학, 17호(1994), pp.19-5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Seungjungwonilki*

*Chosunwangjosilrok*

*Hangangjip*

Hankukinmunkwahakwon, *The Modern Town Chronicle of Korea*, Vol.14, Seoul:  
Hankukinmunkwahakwon, 1991.

Lee, Sangku, *The Collection of Jangheung Chiriji · Uepji*, Kwangju: The culutural center of  
Jangheung, 1992.

Lee, Haejun, *History of rural community of the Chosun Dynasty*, Minjokmunwhasa, 1996.  
Yeojidoseo Chollado III. Bun, Juseung translation, Chunju: Designheureum, 2009.

Ahn, Hyeonju, "A Study on the Publishing Culture of Chonnam Region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3(2012), pp.407-432.

Cho, Wonrae, "{Seungpyungji} of Lee, Sukwang, Governor of Suncheon." *The Journal of  
Namdo Area Studies*, Vol.6(1997), pp.307-323.

Choi, Yunjin, "A Study on the Private Ulletin that Published in Kyungsang-do(慶尙道)  
from 16C to 17C." *Journal of Chunbuk History Society*, Vol.17(1994), pp.19-52.

Chung, Daeyoung, "A Study on the Submission Order of National Town Chronicle in 1899  
Korean Empire(Daehanjeguk)." *Koreabibliography*, Vol.38(2011), pp.77-113.

Kim, Junbae, "A Study on Uepji in tthe Chosun Dynasty." *Korea Biblia*, Vol.2(1974),  
pp.211-308.

Lim, Jiwhan, "A Study of Local history literature about Chunbuk(1) : A Study on the  
Town Chronicle of Chunbuk." *Journal for the Cholla Cultural Research Center*,  
Vol.3(1989), pp.112-135.

Yang, Bokyu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epji in tthe Chosun Dynasty and  
Geographical Cognition."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 1987.

Yang, Bokyu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hosun's Uep-Province."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4(1997, 12), pp.203-225.